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 경 희

2019년 8월

#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성 봉

홍 경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홍경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인

위 원 \_\_\_\_\_ ①인

위 원 \_\_\_\_\_ ①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국문초록>

##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홍 경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SNS 이용동기가 새로운 또래관계 형성 및 기존의 또래관계 강화에 끼치는 영향을 실제로 확인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률표집 방식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4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4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02부를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료를 제외, 총 38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도구는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3.0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자료의 이상치 그리고 정규성

을 분석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변인별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에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 첫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또래관계의 변인 간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오락추구와 또래관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오락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특성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인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오락추구가 또래관계의 도움, 친밀, 인정을 포함하는 긍정적 특성과 갈등, 경쟁을 포함하는 부정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자신을 주변에 알리고 또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유명한 사람과 교류할 목적보다는 친밀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재미로 SN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와 청소년들은 SNS에서 기회를 갖고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핵가족화, 집단따돌림, 개인주의의 확산, 자살과 학교폭력,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등과 같이 비참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은 관계를 가지며 외로움을 느끼면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관계의 욕구를 충족

시키며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SNS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여러 친구와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SNS를 일반적인 소통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여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SNS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제고가 요구된다.

주요어: SNS 이용동기, 또래관계, 제주도 고등학생

※ 본 논문은 2019년 6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3
3. 연구모형 .....	4
4. 용어의 정의 .....	4
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	4
나. SNS의 이용동기 .....	5
다. 또래관계 .....	5
<b>II. 이론적 배경</b> .....	6
1. 청소년기와 SNS에 대한 이해 .....	6
가. SNS의 개념 및 특징 .....	6
나.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특징 .....	8
다. 청소년기 SNS 이용 특성 .....	9
2. SNS 이용동기 .....	11
가. SNS 이용동기의 개념 .....	11
나. SNS 이용동기의 구성요소 .....	13
3. 또래관계 .....	15
가. 또래관계의 개념 .....	15
나. 또래관계의 구성요소 .....	17
4.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20
<b>III. 연구방법</b> .....	22
1. 연구대상 .....	22
2. 측정도구 .....	23

3. 자료분석 .....	25
<b>IV. 연구결과 및 해석 .....</b>	<b>27</b>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	27
2.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	28
3.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30
<b>V. 논의 및 결론 .....</b>	<b>33</b>
참고문헌 .....	37
Abstract .....	44
부록 .....	47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23
표Ⅲ-2 SNS 이용동기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	24
표Ⅲ-3 또래관계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	25
표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	28
표Ⅳ-2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	29
표Ⅳ-3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31
표Ⅳ-4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32

##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모형 .....	4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은 사람들이 거리의 장벽과 상관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형성된 매체이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메일에서 비롯된 인터넷 이용이 오늘날 교육, 문화, 사회 등 생활 전체에 활용되면서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WiFi 통신 환경 구축 그리고 태블릿 PC 보급으로 시공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이은주, 2015).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의 급격한 상승과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심성욱, 김운한, 2011). 더욱이 현재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단순하게 의사소통이나 정보탐색의 기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간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구체화하고자 매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Boyd와 Ellison(2007)의 연구에서는 SNS란, 온라인을 통해 자신만의 프로필을 갖추고, 그 중 일부분만을 공개하여 지인 혹은 많은 SNS 사용자들과 관계형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김윤화(2016)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미디어 사용률보다 SNS 사용률이 거의 2배 가깝게 높았고, 그 증가폭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NS 이용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1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20대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30대, 그 다음으로 40대,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SNS 이용이 늘어난 데에는 앞서 기술한 시공간 제약성의 완화와 함께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특징인 인간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듯 SNS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프로필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의사소통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Ellison & Boyd, 2007). 나아가 Maslow의 욕구 위계설에 의하면 사람은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룹에 소속되고 관심을 얻고자 하는 관계욕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안정민(2011)의 연구에 따르면 SNS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관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 특성을 지닌 SNS는 최근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현재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핵가족화,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자살과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청소년들은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SNS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여러 친구와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했다. 청소년들은 SNS를 이용해 새로운 사람을 접하거나 유명인과 소통할 목적보다는 친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즐거워서 SNS를 이용한다고 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즉, SNS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그들의 사회성과 가치관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써 청소년들은 새로운 또래관계의 형성을 원하며 동시에 기존의 또래관계를 강화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SNS는 이를 도와주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SNS 사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강민주, 홍지은, 2013)과 청소년의 SNS 사용중독(김기모, 2013) 그리고 SNS 사용 현황 조사(이창호 외, 2012)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SNS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왜 그렇게 SNS를 이용하는가에 관한 이유, 즉 다시 말해 청소년의 SNS 이용동기이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SNS를 이용하는가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 청소년의 대인관계인 또래관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전하고 주체적인 SNS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 개인의 대인관계인 또래관계 특성을 이해한다면 SNS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적합한 지도 방식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SNS를 진실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는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는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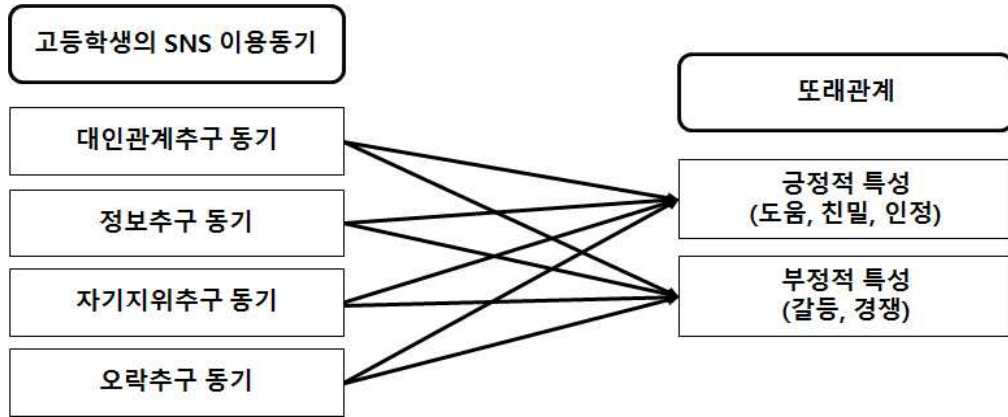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모형

###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SNS, SNS 이용동기, 또래관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Ellison와 Boyd(2007)의 연구에서는 SNS란 개인정보를 갖추고, 개인 간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결을 공유 및 이를 연계하는 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정보공유와 자기표현, 인맥관리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본 연구에서는 SN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 개인의 인맥관리는 물론 여러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나. SNS 이용동기

이용동기는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인 특성으로, 특정 행동의 시작과 지속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홍표, 2003). 즉, SNS 이용동기는 SNS를 이용하는 개인의 상황 및 상태, 욕구를 반영하여 행동에 직결되는 의식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Swanson, 1977).

본 연구에서는 최영과 박성현(2011), 최정화(2012), 조진행(2018), Park 외(2009)의 연구를 근거로 이용동기 척도를 구성하였다. SNS 이용동기 척도는 대인관계추구 동기, 정보추구 동기, 자가지위추구 동기, 오락추구 동기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다.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위해 행동을 할 때 복잡성 수준이 비슷하고 친근하고 수평적 관계를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서로 인지하는 심리적 관계가 형성된 집단으로 정의된다(김주연 외, 2012; Harter, 1982). 또한 서로 호감을 갖는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관계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수평적인 입장에서 비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에 결합한 관계를 또래관계로 규정하였다(정유진, 김광웅, 2006).

본 연구에서는 Asher & Parker(1993), Coleman, Ladd와 Kochenderfer(1996)가 이용한 또래관계 척도 검사를 정미경(2002)이 수정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검사인 ‘또래관계 척도검사’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는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긍정적 특성으로 도움, 친밀, 인정으로 구성하였고, 부정적 특성은 갈등, 경쟁으로 구성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청소년기와 SNS에 대한 이해

#### 가. SNS의 개념 및 특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소셜미디어라고도 불리우며, 최근 들어 새롭게 시작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Ellison 과 Boyd(2007)의 연구에서는 SNS란 개인이 신상정보를 갖추고, 개인들 간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결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자기표현과 정보공유, 인맥관리 등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유훈식(2009)의 연구에서는 SNS가 갖는 세 가지 속성은 상호작용과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모든 SNS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용자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회 구성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SNS는 사이버공동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사회 구성론은 인간의 관계는 사회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며, 사이버 공동체란 사이버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을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갖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였다(최고은, 2010). 즉, SNS는 웹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 및 관계망의 구조, 정보의 교류,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관계망의 파도 등이라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99년 싸이월드(Cyworld) 등으로 대표되는 SNS 서비스 개발과 열풍을 불러일으킨 SNS의 본 고장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여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토리(KaKao Story), 트



위터(Twitter) 등 세계적인 SNS 서비스와 한국 SNS 서비스 사이의 각축전이다. 등장하는 서비스의 수가 폭넓은 만큼 서비스의 특징 역시 다양하며, SNS 서비스마다 각 매체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기능들이 구축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쌍방향 친구 맺기를 통해 인맥을 넓히는 방법으로 싸이월드의 일촌맺기와 비슷한 형태이고, 트위터는 140자 내 텍스트 위주의 단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및 사진으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Snapchat, Tumblr, Weibo 등 세계적인 SNS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라도 문화에 따라 달리 구현되기도 한다(유나, 김승윤, 이상민, 2016).

최근 SNS 서비스는 기존의 PC시절에 주로 사용하던 카페나 블로그에서 확장된 형태를 지닌 SNS로 이용자의 사생활 공유와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는 개방형 미디어의 공통성을 가진다(정소영, 김종남, 2014). 그래서 여러 SNS 가운데 개인 정보 기반 서비스 유형이 가장 사용률이 높는데 익명을 통해 이전의 인터넷 소통과 다르게 실명에 기반하여 프로필 등록 및 공개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직업, 학교, 문화적 취향, 결혼 여부, 연애, 연령, 이데올로기 및 관심사 등이 전부 선택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친구관계 맺기는 기존 미디어와 다른 SNS의 특징적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수빈, 이장이, 2014; Boyd & Ellison, 2007).

또한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간 연결된 관계가 누적됨으로써 인맥을 쌓아갈 수 있으며, 자신과 연결된 다른 이용자를 드러내어 대인관계망과 그 구조가 드러나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와 차이를 보인다(변태운, 송승근, 2010). 또한 SNS에 의해 사용자는 정보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고, 연결된 사용자를 포함해 또 다른 사용자가 그에 관한 반응으로 서로 다른 피드백과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는 트위터의 리트윗, 인스타그램의 리그램, 푸쉬 알림,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댓글달기 및 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기와 김진성(2011)의 연구에서는 SNS 서비스는 기능이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며, 동일한 기능으로 메시지 서비스, 미디어 공유,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결국 SNS의 핵심가치를 공유와 관계(진창현, 여현철, 2011),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고나계(유훈식, 2009), 커뮤니케이션에서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PC 시절의 SNS와 차별적인 특성이 융합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SNS가 지닌 과거 폐쇄형 커뮤니티 서비스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완성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위를 통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심선희, 문재영, 2012). 또한 SNS가 UCC(user created contents)와 음악 등 여러 콘텐츠와 결합을 통해 지인과의 관계 하에 공유 및 배포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고 보았다(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즉, SNS는 이용자들 개인의 인맥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특성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를 통하여 단순한 의견과 정보를 전하는 것은 물론 상호 간에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며 교환해나가는 가운데 점차 자신을 관찰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발달하게 된다(황기남, 2003).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가족이라는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선생님, 친척이나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 형성된 여러 행동양식은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과 연관된 다양한 능력을 얻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Sullivan(1953)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또래 동성 친구들과의 허물없는 관계가 청소년기 이후 또래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초반 어린 시절 겪었던 관계의 결핍까지도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정소라, 장석진, 2017 재인용).

또한, 최근의 학교에서 주로 학업부진, 일탈행동, 자살과 집단 괴롭힘, 만성적 무력감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원만한 또래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결여라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안향, 김해란, 2018).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 경험 대부분은 학교와 가족에서 형성된다.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고, 학교 울타리 내 또래 친구들과 사귀며 그 안에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은 입시 중심의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에 관한 스트레스를 친구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통신매체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친구보다 휴대폰과 인터넷, 정보 기술을 통해 생성된 사이버 공간에 더 몰입하게 만든다(서중수, 2018).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인간관계를 영위해나가는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영향으로 작용하며, 이들 상호 간 친근감과 신뢰감을 생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폭넓은 교류를 원만하게 지속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신규 매체에 더 흥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문화를 이루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SNS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다. 청소년기 SNS 이용 특성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따르면, 현재 한국의 만3세 이상 인구 가운데 87.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보유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이 중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7.2%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주된 이용 콘텐츠는 청소년의 경우 메신저가 99.0%고 가장 높게 나타났고, SNS 이용하는 청소년은 98.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형지엘리트 교복 브랜드 엘리트가 10대 학생 3826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10대들의 SNS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NS 사용시간은 평일 기준 1일 평균 5시간 이상이 19.3%, 2-3시간 19.2%, 3-4시간 17.5%, 1-2시간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SNS(중복 선택)는 ‘페이스북(67.5%)’

과 ‘트위터(65.3%)’, 그리고 ‘인스타그램(4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네이버밴드(4.5%)’와 ‘카카오토티(4.4%)’의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하는 SNS 개수로는 ‘3개(39.6%)’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개(22.6%)’, ‘5개 이상(18.2%)’ 순으로 나타났다. SNS를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대로는 주로 저녁 ‘오후 6~9시(37.6%)’, 취침 전 ‘오후 10시 이후(36.8%)’로 확인되었으며, ‘시간에 상관없이 접속’한다라는 응답자도 13.2%를 차지했다. SNS 사용 목적으로는 ‘지인 및 친구와 교류를 위해(28.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20.5%)’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16.2%)’가 그 뒤를 이었다. ‘좋아하는 연예인 덕질’을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기타도 9.4%의 비율을 차지했다. 즉,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며, 학습의 공간이나 정치적 담론보다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사귀는 사적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NS의 특징인 즉시성은 정보공유가 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박성훈, 심현정, 2015). 이러한 SNS의 즉시성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은 정보출처로부터 생겨난 유해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 SNS 중독에서 오는 현실에서의 심리적 고립감과 대인 간 대화 단절로 인한 일탈행동 유발과 심리적 불안정, 디지털 피로감, 개인명의 도용,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소년에게 끼치는 부정적 측면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황희은, 김향숙, 2015), 먼저, 명확하지 않은 정보출처를 통해 발생한 유해한 콘텐츠의 재유포를 통한 확산이다. SNS가 갖고 있는 다른 뉴미디어와의 차이점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빠른 정보 과급력으로 특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 경우 콘텐츠나 루머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둘째, 집단 괴롭힘 그리고 비방과 욕설과 같은 사이버언어폭력이다. 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은 비방과 욕설 혹은 왕따와 같은 집단 언어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정보원의 익명화란 SNS 속성은 개인의 언어적 표현 및 정보유포에 관한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사실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타인에 관한 인신공격성 루머나 이미지유포, 사생활 침해와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다. SNS의 부정적 측면은 흔히 개인 미디어인 스마트폰에 의해 SNS를 이용하게 되면서 SNS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친구나 부모와의 대화 단절 및 감소가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거나 혹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SNS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SNS는 사회 자본 증진과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며 또래관계를 견고히 하는 주된 매체가 될 수 있다(이희복, 김대환, 최지윤, 신명희, 2014). 또한 입시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부모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다(허정경, 2018). 그러나 청소년들의 SNS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SNS는 타인을 괴롭히고 친구를 따돌리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청소년의 SNS 사용에 관한 이해 및 교육이 중요하다.

## 2. SNS 이용동기

### 가. SNS의 이용동기의 개념

동기란 심리 내적인 특성으로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정 행동의 시작과 지속과정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다(이흥표, 2003). 프로이드는 고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는데, 무의식적 욕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황적 요소가 보다 더 반영되어 행동에 직결되는 의식적 상태를 동기라 할 수 있다(Swanson, 1977). 이러한 점에서 SNS 이용동기는 SNS를 사용하는 개인의 상태 및 상황, 욕구 등을 반영하며 SNS를 이용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이용-충족 이론에 의하면(Katz, 1974), 대중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개인의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적·내적 요구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러한 내적 요인들이 미디어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중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송이, 2014). 이용-충족이론의 선구자인 Katz(1974)에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가 선별성

과 적극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하였다. 적극성이란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미디어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미디어 메시지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별성이란 사용자 각각의 가치 및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용-충족이론을 통해 살펴봤을 때, 미디어 이용자의 행위는 자신의 개별적인 욕구 및 사회·문화적 요구를 기반으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성윤숙, 박한우, 박상희, 2006).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Katz(1974)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의 동기를 현실도피, 개인과 사회 통합성 추구, 정서추구, 지적추구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Blumler(1979)의 연구에서도 이용 동기를 개인적 정체성 추구, 기분전환, 인지적 지향성의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후에 Rubin과 Perse(1987)는 정보 검색, 오락, 시간 보내기 등을 미디어 이용의 중요 요소로 설명하였고,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교류 활동 및 효용성이 이용 동기로 추가되었다(함소연, 2016).

SNS의 출현 및 확대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기기를 기반으로 SNS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동기(내가영, 2010), 관계형성 유용적 동기(김경은, 2013),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 대인관계추구 동기, 정보추구 동기(최정화, 2012; Park, Kee & Valenzuela, 2009), 기능적 이용 동기, 유희적 이용동기(최도순, 2012), 오락적 동기(김경은, 2013; 최정화, 2012) 등이다. 전반적으로 SNS 이용실태와 큰 차이점은 없었지만, SNS 특성을 고려한 정보, 교류, 참여로 요약할 수 있는 동기를 확인하였다.

또한 SNS는 기존 라디오, TV 등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전통적인 매체와 다르게 능동적으로 선택적인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밀접한 SNS라는 개인 매체를 어떠한 이용동기로 수용하고 사용하는지에 주목한 것으로, 전통매체 동기 연구와 함께 이용충족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도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SNS는 일상적 미디어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더욱 SNS의 기능이 세분화 되어지고 여러 서비스의 등장으로 소비자 또는 정치적 참여자로서 새로운 다양한 동기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렇듯 SNS 영향력을 바탕으로 SNS 동기도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SNS의 이용동기의 구성요소

SNS를 이용하는 동기인 정보 및 오락 동기 즉, 전통매체와 같은 기능적 동기 외에, 최근 SNS에 접근하는 이용동기를 알아보았다. 심혜영과 임결(2011)의 연구에서는 정보추구적 동기, 자아적 동기, 오락적 동기, 상호작용적 동기를 추출하였고, 전유희, 구철모와 정남호(2011)에 따르면 SNS 사용 중심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자기표현 즉, 다시 말해 정체적 표현욕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Sheldon(2008)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동기로 외롭지 않기 위한 동기, 관계유지, 시간 때우기, 엔터테인먼트, 가상세계 만들기, 멋져 보이고 싶은 동기를 추출하였고, 오승석(2010)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동기로 자기 확인의 동기, 정보탐색적 동기,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 엔터테인먼트적 동기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Park 외(2009)는 오락추구, 자기지위추구, 대인관계추구, 그리고 정보추구를 4가지 하위 요소로 추출하였다. 즉, 공통적으로 자아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SNS 이용 자체가 개인에게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ark 외(2009)의 연구에서 보고한 SNS 이용동기에 관심을 두었다. 이용동기의 구성요소를 각각 살펴보면, 대인관계 추구동기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공동체 안의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이용동기를 뜻한다. 이은곤, 김경규와 이정렬(2013)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감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유대감을 쌓아가며 상호작용이 형성된다고 느낄 때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동시에 소속감이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의 즉시성, 편리성, 연결성 등의 기능은 온라인 관계형성에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노영, 2016).

자기지위 추구동기는 SNS상의 자기노출과 자기표현을 통해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고 개인적인 지위와 정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자기표현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관리와도 연결된다. 특히, SNS 서비스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어 텍스트를 뛰어넘은 자기표현을 가능

케 한다(이정권, 최영, 2015). 한편 오프라인상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탐색과 온라인상의 자기노출정도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박은아와 손영란(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생활에서 소극적 자기노출을 보이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채비호(2013)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오프라인상의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SNS에서의 자기노출 수준과 현실에서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일치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SNS에서의 자기표현이 긍정적 인상관리를 위한 전략적 자기노출의 경향이 있어 오프라인상의 개인의 모습과의 일치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SNS상의 자기노출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좋은 측면이 표현되도록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고(이현지, 2012), 이에 따라 SNS 상황에서의 자기노출이 실제 상황의 자신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전범수, 2012). 이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 및 지위 추구에 관한 욕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때 실제 모습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부적응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추구 행위는 여러 사회적 요구를 토대로 발생한다.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은 특정 정보를 필요로 하며, 그에 적합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연속된 과정을 정보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Wilson, 1999). 결국 정보추구 동기란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일상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보 혹은 아이디어 탐색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Lenhart(2006)의 연구에서는 SNS 정보탐색 동기에 정보의 추구, 이슈 및 미디어 체크, 환경의 감시, 정치 이유 탐색, 자료의 보관 기술의 공유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NS 사용량과 정보탐색 동기에 관해 SNS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치 및 사회적 정보획득 또한 증가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함소연, 2016).

오락추구 동기란 흥미 기반의 재미추구 활동 혹은 취미활동 등의 능동적 참여와 시간 때우기, 심심풀이와 같은 수동적 참여를 포함한다. 이정권과 최영(2015)은 소셜미디어의 오락적 이용동기에 장치나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적 기능과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한 재미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전자가 다른 사람의 게시



글 보기, 동영상 보기 등과 같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취향과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잡담 나누기, 지인과 메시지 주고받기 등과 같은 참여적 자세이다. 이와 같은 동기는 모두 흥미와 재미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며 습관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함소연, 2016).

### 3. 또래관계

#### 가. 또래관계의 개념

또래란 서로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혹은 성숙 수준이 동일하여 일상생활에서 같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을 의미한다(유안진, 김진경, 한유진, 2002; Perry & Bussey, 1984).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Harter(1982)는 서로 상호작용을 위해 행동을 할 때 복잡성 수준이 비슷하고 친근하고 수평적 관계를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서로 인지하는 심리적 관계가 형성된 집단을 또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주연 외, 2012).

청소년들은 또래 간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수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Wenz-Gross 외(1997)는 연령이나 성숙이 비슷한 아동 혹은 청소년 집단으로 규정하며 또래관계의 확장을 청소년시기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또래집단은 준거 집단과 지지집단을 역할하고 담당하며 가족을 넘어 서로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안수영, 이형실, 2009). 정유진과 김광웅(2006)에 따르면 서로 호감을 가지는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로 개인의 선택을 통해 수평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이지 않고 사회적 공감에 결합한 관계를 또래관계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은 일상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행동이 비슷한 아이들로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을 의미한다(안수영, 이형실, 2009). 청소년시기에는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 사회화를 얻고, 비슷한 또래와의 사

회적 동일시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성하며 구조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윤진아, 2010). 사회적 환경에서 직접관계망은 가족이지만, 나이가 비슷한 또래친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청소년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신과 유사한 조건의 친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 존재를 인지하며 서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동질적, 긍정적 피드백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청소년기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받는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충동이 증가하고 개인의 동기와 선택으로 구성된 또래집단에 개입이 되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가되는 시기이다(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2).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또래집단을 이루면서 사회성을 키우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증진해 나가며 집단에 소속되어 그 구성원 속에서 단체행동을 익히며 충성심을 발휘하거나 개인의 가치관과 집단의 기대 간 유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외로움을 보호받으며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또래관계는 첫째, 사회적 안정감과 지원을 제공해 주며 상호 간 격려와 지지, 적절한 반응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능력이 있고 매력적이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둘째, 사회적 비교 기능을 가지며 셋째,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가지고 넷째, 서로에게 강한 강화자가 된다(최윤미, 2012).

인간에게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회적 행위를 뜻한다.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는 교사, 가족관계, 또래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관계는 인간의 인생 단계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또래관계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친구에 관한 애정의존이 청소년기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기도 하다.

청소년 주위에 있는 환경체제는 다양하다.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 여러 공간이 존재하지만, 청소년이 하루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공간은 학교이다. 학교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는 곳으로 사회생활적응의 역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박영신 외(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원만한 친구관계라고 하였으며,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수준과

상관없이 친구관계가 청소년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로 인해 또래관계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진다. Aboud와 Mendelson(2003)은 또래관계에서 동성친구의 주요 기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공유할 수 있는 교제의 즐거움, 둘째 안정된 관계를 통한 믿음과 신뢰, 셋째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인정, 넷째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감, 다섯째 서로 정보를 나누거나 도와줄 수 있는 도움, 마지막으로 사회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이다. 이런 6가지 기능이 청소년에게 친구와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한영경, 김은정, 2011).

즉, 또래 관계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이은희, 2005),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일상에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런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예측 관찰할 수 있고 그들의 내·외현화 문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도현심, 조주연, 2011). 또한 친구의 지지 및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친구의 지지가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내적, 외적인 측면에 적응도가 높고(심희옥, 2000),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문제점이 내·외면화 문제, 학업의 부적응인데, 개인적, 집단적으로 또래 관계의 발달을 하는데 필수요인으로 성인기까지 발달하는 동안 적합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이처럼 또래관계는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사회관계이며, 또래관계의 부재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개인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청소년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 나. 또래관계의 구성요소

가족 이외에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또래와의 관계이다. 아동기 중반부터 형성되는 또래관계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또래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돕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들을 믿음이 없는 행위로 여긴다. 그 결과 또래관계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래관계에 속한 청소년 간에는 강한 소속감이 나타난다. 심지어 소속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

년들에 대한 배타성까지 보이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Berk, 1996, 정옥분 2015에서 재인용). 즉 배타성, 도움, 소속감 그리고 신뢰감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신뢰감이다(정옥분, 2015). 신뢰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확신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한 성격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자기개념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박아청, 1999). 특히 안정된 신뢰감을 갖는 청소년은 타인을 보다 지지적으로 느낀다(박아청, 이승국, 1998; Grace & Schill, 1986). 또한 또래에 대한 신뢰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또래관계 안의 문제행동정도를 떨어뜨리고(김윤희, 2008),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Aboud와 Mendelson(1999)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하위요소로 인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또래관계 안에서 다른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며 소속감을 느끼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Maslow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특정 집단에 속해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소속감은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집단과 개인의 일체감을 말한다. 소속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하다(이수진, 2007).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가 아닌 또래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들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래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남학생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친구를 만들고 운동경기를 같이하며 소속감을 이루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취미활동을 함께 하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한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수용과 인정을 받으려는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며(윤상은, 2008) 또래관계를 더욱 밀착시킨다.

셋째, 도움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정의된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동이다(Underwood, 1997). 즉 도움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자발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으로서(박성희, 2004), 다른 청소년들에

게 친밀감을 갖게 하고, 또래관계를 보다 밀착시킨다.

위에서 밝힌 또래관계의 긍정적 구성요인들은, 청소년에게 ‘또래’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래관계는 청소년에게 항상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배타성과 같은 부적응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불일치와 갈등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Berndt & Perry, 1986), 이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요인들이 또래관계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진(1984)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기준을 개인의 특성과 장점, 상호의존의 정도,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어려움 및 갈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또래관계가 단순히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관계 안에서 질투를 하거나 혹은 서로 다투는 갈등도 함께 동반함을 뜻한다. 고윤주와 이은혜(1999)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제작을 위한 연구에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 척도는 신뢰와 정서적 안정, 인정,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이며, 부정적 측면의 척도는 배타성을 고려한 경쟁과 갈등으로 본다.

이남희(2005)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를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라는 7개의 하위 영역을 보고하였다(김성애, 2011). 만족감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정신적, 물질적인 것과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갖는 감정으로서 일정한 욕구나 목적 달성에 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정재연, 2012).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타인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지속하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Satir, 1976). 신뢰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신뢰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저로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로서 간주한다(옥재진, 2011). 친근감은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래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련하여 친근성(immediacy)이라는 비슷한 개념을 말한다(신기훈, 2017). 민감성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매우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어 또래관계에서 또래와의 필요와 요구에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고,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수진, 2015). 개방성은 개방성 구인에 의해 개인의 사고나 경험이 갖는 깊이, 폭, 복잡성, 독창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고,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변화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조영희, 김동일, 2015). 이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이해성은 자신과 또래에 관해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4.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직접적인 선행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해당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맥락이나 행동에 관한 동기가 해당 맥락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영(2011)은 초등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여가스포츠 참여 동기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스포츠 여가에 관한 참여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외적 동기가 상위에 있는 교사의 경우는 직무만족도 관련 하위요인인 교직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는 다른 교사들과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SNS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SNS와 동일한 소셜미디어 매체에 의해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의 SNS 사용에 의해 또래관계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또래관계 증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최훈영(2006)은 통신이력 데이터를 이용한 청소년 또래관계의 객관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신의 시도횟수 분석을 통해 친밀도를 측정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SNS 사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래관계의 친밀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박기범(2014)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써 소셜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보고하였다. 대인관계 성향의 사회적 성향, 표현적 성향 요소에 관해 외적동기 요인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적동기 요인 역시 사회적 성향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무동기 요인도 사회적 성향과 표현적 성향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지속적 참여의도에 대해 소셜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참여 동기는 유의미한 연계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박혜연(2005)은 중학생의 체육수업 동기는 체육수업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즉, 다시 말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흥미가 높을수록 체육수업 태도의 사회관계적, 심리적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수업 동기는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체육수업 동기에 있어서 노력과 유능감이 높을수록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양한 분야의 영역 또는 맥락, 행위들에 참여할 때, 그것에 관한 이용 동기 또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참여자와 다른 개인들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SNS라는 매체로 다시 생각해보면, SNS는 사회적인 매체이며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이용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동기는 SNS로 연결된 타 사용자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확률표집 방식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400명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고등학교 실무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방식을 충분히 고지하고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4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02부를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무응답 혹은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료를 제외, 총 38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6.2%(102명), 여학생이 73.8%(287명)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65.3%(25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학년이 33.4%(130명), 3학년이 1.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 51.4%(200명)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시간 이상-4시간 이하'가 37.3%(145명), '4시간 이상-6시간 미만'이 8.5%(33명), '6시간 이상'이 2.8%(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유형에 대해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389명 중, 433개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39.7%(172명)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이 29.6%(128명), 트위터는 13.6%(59명), 카카오토키는 1.4%(6명) 순으로 나타났고, 제시된 SNS 이외에 기타 유형의 SNS를 이용하는 연구대상자는 14.3%(62명)로 확인됐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389)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성별	남	102	26.2
	여	287	73.8
학년	고등학교 1학년	254	65.3
	고등학교 2학년	130	33.4
	고등학교 3학년	5	1.3
SNS 하루 평균 이용시간	2시간 미만	200	51.4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145	37.3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33	8.5
	6시간 이상	11	2.8
주로 이용하는 SNS 유형 <sup>a</sup>	카카오토티	6	1.4
	페이스북	128	29.6
	인스타그램	172	39.7
	트위터	59	13.6
	블로그	6	1.4
	기타	62	14.3

<sup>a</sup> 다중응답분석: 총 389명 중, 433개의 응답을 함

## 2. 측정도구

### 가. SNS 이용동기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최영과 박성현(2011), 최정화(2012), 조진행(2018), Park 외(2009)의 연구를 근거로 이용동기를 묻는 척도를 활용하였다. SNS 이용동기 척도는 대인관계추구 동기(7문항), 자기지위추구 동기(6문항), 정보추구 동기(5문항), 오락추구 동기(3문항)의 4개 요인과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에 관한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이용동기가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S 이용동기 하위척도별 문항번호와 문항수 그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표로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제시된 표 III-2와 같이 조진행(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대인관계 추구 동기 Cronbach's  $\alpha=0.837$ , 정보추구 동기 Cronbach's  $\alpha=0.886$ , 자가지위추구 동기 Cronbach's  $\alpha=0.898$ , 오락추구 동기 Cronbach's  $\alpha=0.608$ , SNS 이용동기 전체의 Cronbach's  $\alpha=0.898$ 로 확인됐다.

표 III-2 SNS 이용동기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Cronbach's $\alpha$	본 연구 Cronbach's $\alpha$
대인관계추구 동기	1, 2, 3, 4, 5, 6, 7	7	.864	.837
정보추구 동기	8, 9, 10, 11, 12	5	.889	.886
자가지위추구 동기	13, 14, 15, 16, 17, 18	6	.863	.898
오락추구 동기	19, 20, 21	3	.716	.608
계	21		.903	.898

#### 나.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sher & Parker(1993), Coleman, Ladd와 Kochenderfer(1996)가 이용한 또래관계 척도 검사를 정미경(2002)의 연구에서 수정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검사인 '또래관계 척도검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자신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것을 묻는 총 3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은 도움(6문항), 친밀(6문항), 인정(5문항)의 긍정적 특성과 갈등(9문항), 경쟁(9문항)의 부정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긍정적 특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 특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관계 하위척도별 문항번호와 문항수 그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제시된 표 III-3 같이 정미경(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도움 Cronbach's  $\alpha=0.831$ , 친밀 Cronbach's  $\alpha=0.744$ , 인정 Cronbach's  $\alpha=0.670$ 으로 나타났고, 도움, 친밀, 인정을 포함한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은 Cronbach's  $\alpha=0.868$ 로 나타났다. 갈등 Cronbach's  $\alpha=0.761$ , 경쟁 Cronbach's  $\alpha=0.795$ 로 나타났고, 갈등과 경쟁을 포함한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은 Cronbach's  $\alpha=0.823$ 로 나타났다.

표 III-3 또래관계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Cronbach's $\alpha$		본 연구 Cronbach's $\alpha$	
긍정적 특성	도움	1, 3, 5, 7, 9, 11	6	.83	.90	.831	.868
	친밀	13, 15, 16, 18, 20, 22	6	.83		.744	
	인정	24, 26, 28, 30, 32	5	.80		.670	
부정적 특성	갈등	2, 4, 6, 8, 10, 12, 33, 34, 35	9	.82		.761	.823
	경쟁	14, 17, 19, 21, 23, 25, 27, 29, 31	9	.83		.795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 점수 범위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이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또래관계의 변인간에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넷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SNS 이용동기,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에 관한 기술 통계 분석은 표 IV-1과 같다.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알아보면, SNS 이용 동기 중, 대인관계 추구동기의 평균은 3.57, 정보추구동기의 평균은 3.66, 자가지위추구동기의 평균은 3.47, 오락추구동기의 평균은 3.20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동기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정보추구동기( $M=3.66$ ,  $SD=.696$ )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래관계는 긍정적 특성 중, 도움의 평균은 3.65, 친밀의 평균은 3.57, 인정의 평균은 2.98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도움( $M=3.65$ ,  $SD=.717$ )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 중, 갈등의 평균은 2.64, 경쟁의 평균은 2.43으로 나타나 갈등( $M=2.64$ ,  $SD=.692$ )의 수준이 경쟁( $M=2.43$ ,  $SD=.694$ )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도의 절대 값이 3이하로, 첨도의 절대 값이 10이하로 나타나야 한다(Kline, 1998; 배병렬, 2011).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변인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 값을 알아보면, 왜도의 절대 값은 0.03에서 0.35, 첨도의 절대 값은 0.01에서 0.45의 범위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N=3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SNS 이용 동기	대인관계추구	3.57	.751	-.04	.31	1-5	
	정보추구	3.66	.969	-.35	-.37	1-5	
	자가지위추구	3.47	.830	.02	-.01	1-5	
	오락추구	3.20	.802	.35	.24	1-5	
또래 관계	긍정적 특성	도움	3.65	.717	-.06	-.11	1-5
		친밀	3.57	.723	-.16	.01	1-5
		인정	2.98	.750	.23	.45	1-5
	부정적 특성	갈등	2.64	.692	-.22	-.17	1-5
		경쟁	2.43	.694	-.15	-.32	1-5

## 2.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오락추구)와 또래관계(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와 또래관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대인관계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과 정적 상관( $r=.582, p<.01$ )을 보였고, 부정적 특성과는 부적인 상관( $r=-.586, p<.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대인관계추구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동기를 가질수록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은 높아지고,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정보추구와 또래관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정보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과 정적 상관( $r=.282, p<.01$ )을 보였고, 부정적 특성과는 부적인 상관( $r=-.416, p<.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이 정보를 추구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동기를 가질수록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은 높아지고,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자가지위추구와 또래관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자가지위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과 정적 상관( $r=.566, p<.01$ )을 보였고, 부정적 특성과는 부적인 상관( $r=-.603, p<.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이 자가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동기를 가질수록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은 높아지고,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오락추구와 또래관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오락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과 정적 상관( $r=.305, p<.01$ )을 보였고, 부정적 특성과는 부적인 상관( $r=-.361, p<.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동기를 가질수록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은 높아지고,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N=389)

변인		1-1	1-2	1-3	1-4	2-1	2-2
SNS 이용 동기	1-1 대인관계추구	1					
	1-2 정보추구	.277**	1				
	1-3 자가지위추구	.659**	.278**	1			
	1-4 오락추구	.429**	.068	.496**	1		
또래 관계	2-1 긍정적 특성	.582**	.282**	.566**	.305**	1	
	2-2 부정적 특성	-.586**	-.416**	-.603**	-.361**	-.637**	1

\*\* $p<.01$

### 3.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가.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적 가정의 충족 여부에 대해 잔차의 플롯을 확인하여 진단했다. 분석 결과, 가설에 관한 회귀 모형에서는 등분산성의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DW통계량은 0에 근접하면 인접 오차항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며, 2에 근접하면 오차항 간에 독립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값이 4에 근접하면 인접 오차항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DW통계량이 1.806으로 기준치 2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독립변수에 관하여 VIF 통계량이 10 이하, 공차 한계 허용치가 0.1 이상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본 모형은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오락추구 동기는 또래관계 중 긍정적 특성의 40.0%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있어서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들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하위 요인들 중, 대인관계추구( $\beta=.354, t=6.186, p<.001$ ), 정보추구( $\beta=.098, t=2.206, p<.05$ ), 자가지위추구( $\beta=.309, t=5.179, p<.001$ )는 또래관계 중, 긍정적 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중, 도움, 친밀,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

독립변수	비표준화B	표준화 $\beta$	t-value	p-value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1.388	-	9.131***	.000	-	-
대인관계추구	.286	.354	6.186***	.000	.540	1.851
정보추구	.061	.098	2.206*	.028	.897	1.115
자가지위추구	.225	.309	5.179***	.000	.497	2.012
오락추구	-.005	-.007	-.135	.893	.727	1.375

$R^2=.407$ , 수정된  $R^2=.400$ ,  $F=57.422(df1=4, df2=335)$ ,  $p=.000$

\* $p<.05$ , \*\* $p<.01$ , \*\*\* $p<.001$ , DW=1.806

#### 나.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적 가정의 충족 여부에 대해 잔차의 플롯을 확인하여 진단했다. 분석 결과, DW통계량이 1.911로 기준치 2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또한 다중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VIF 통계량이 10 이하, 공차 한계 허용치가 0.1 이상으로 보여져 가설을 검증할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본 모형은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오락추구 동기는 또래관계 중 부정적 특성의 47.6%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있어서 SNS 이용동기의 하위요인들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하위 요인들 중, 대인관계추구( $\beta=-.281$ ,  $t=-5.257$ ,  $p<.001$ ), 정보추구( $\beta=-.245$ ,  $t=-5.912$ ,  $p<.001$ ), 자가지위추구( $\beta=-.317$ ,  $t=-5.680$ ,  $p<.001$ )는 또래관계 중, 부정적 특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가지위추구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중, 갈등, 경쟁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

독립변수	비표준화B	표준화 $\beta$	t-value	p-value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4.748	-	35.244***	.000	-	-
대인관계추구	-.215	-.281	-5.257***	.000	.540	1.851
정보추구	-.145	-.245	-5.912***	.000	.897	1.115
자가지위추구	-.219	-.317	-5.680***	.000	.497	2.012
오락추구	-.048	-.067	-1.443	.150	.727	1.375
$R^2=.482$ , 수정된 $R^2=.476$ , $F=77.959$ (df1=4, df2=335), $p=.000$						

\*\*\* $p<.001$ , DW=1.911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SNS 이용동기가 새로운 또래관계 형성 및 기존의 또래관계 강화에 끼치는 영향을 실제로 확인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또래관계의 변인 간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기지위추구, 오락추구와 또래관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의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기지위추구, 오락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정적 특성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 이은주(2015)의 결과와 유사하고, SNS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대인관계 특성에서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한 이현지(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어떠한 맥락이나 행위에 관한 동기가 해당 맥락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인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기지위추구, 오락추구가 또래관계의 도움, 친밀, 인정을 포함하는 긍정적 특성과 갈등, 경쟁을 포함하는 부정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기지위추구가 또래관계의 긍정적 특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SNS 이용동기 중 대인관계추구, 정보추구, 자기지위추구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특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서 조사한 내용인 청소년들은 자신을 주변에 알리고 또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 또

한 청소년들은 SNS를 이용해 새로운 사람을 접하거나 유명인과 소통할 목적보다는 친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즐거워서 SNS를 사용하고 있다는 안정민(2011)의 결과와 청소년들은 SNS에서 기회를 갖고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Livingstone, 2008)와 유사하다. 현재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의 확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핵가족화,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으로 비참한 현실에서 제한된 관계를 가지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청소년들은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SNS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여러 친구와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터넷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교체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지만 큰 부담 없이 관계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처럼 친구와의 신뢰 및 강한 유대감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가상공간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실패한 경험이 많거나 적절한 사회관계기술을 훈련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고립된 개인’으로서 안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한다(김민, 2002). 사회기술의 부족은 아동,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와 여러 사회활동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인 평가를 외면하고자 또래관계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회피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SNS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또래관계에서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관계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SNS에 대한 이용동기 중, 오락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인 고등학생의 SNS를 사용함에 있어 이용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청소년의 SNS 사용은 기존 친구들과의 또래관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진실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진실한 소통

과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 혹은 가정에서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SNS를 상담매체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평소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친밀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올바른 SNS 사용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정보추구와 대인관계추구의 SNS 이용동기가 대체로 높았고, 오락추구 이용동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가 또래와의 소통과 정보교환에 필요한 매체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SNS 사용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SNS를 통해 또래와 소통하는 방법,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SNS 이용동기 중, 오락추구는 또래관계의 긍정적·부정적 특성에 모두 유의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SNS의 이용을 단순히 오락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증명하듯 현재 SNS 업계는 오락적 요소에 치우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SNS로 인해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이 SNS를 일반적인 소통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SNS를 이용하여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SNS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제고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확장시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명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을 탐색하여 그 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SNS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SNS 이용동기를 분석하였으므로, SNS 유형이 지닌 특징이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카카오토키는 오락성이 강하고, 페이스북은 대인관계형성, 블로그는 정보수집 매체이므로 이러한 SNS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 전자거래학회지**, 15(1), 103-118.
- 구철모, 정남호, 전유희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동기와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온라인에서의 정체성 표현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48-54.
- 김경은 (2013). 자기노출과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이용형태. 서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모 (2013).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SNS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2011).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2011). 초등교사의 여가스포츠 참여 동기와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 (2014). 여중생의 SNS 이용동기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화 (201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5(3), 7-12.
- 김중기, 김진성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화 정책**, 18(3), 3-27.
- 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아동학회지**, 33(1), 111-131.
- 내가영 (2010).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와 만족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수진 (2015). 영아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보육효능감의 조절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 (2016). SNS 이용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페이스북 이용자

- 들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7(3), 301-320.
- 박기범 (2014). *소셜 댄스스포츠 참여동기가 대인관계성향 및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훈, 심현정 (2015).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특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1), 156-185.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박혜연 (2005). *중학생의 체육수업동기가 체육수업태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변태운, 송승근 (2010). 소셜네트워크의 핵심요인 분석: 기술과 서비스 측면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29(4), 89-108.
- 서종수 (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4), 595-611.
- 성윤숙, 박한우, 박상희 (2006).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74.
- 손영란, 박은아 (2010). 자기노출 및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차이. *미디어, 젠더 & 문화*, (15), 155-194.
- 신기훈 (2017).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사전학습 동영상에 나타난 교수자의 친근성 행동(immediacy behavior)이 학습자의 개념이해도와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선희, 문재영 (2012). 모바일 SNS 속성이 관계형성과 정보공유를 매개로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품질경영학회지*, 40(1), 60-72.
- 심성욱, 김운한 (2011).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소셜미디어 광고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회*, 13(2), 342-376.
- 심혜영, 임걸 (2011). SNS 이용동기가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2(3), 383-390.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안수빈, 이강이 (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SNS 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 51-67.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163-176.
- 안정민 (2011). SNS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성격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민 (2011). SNS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성격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향, 김해란 (2018). 청소년의 대인관계위기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 171-188.
- 오승석 (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재진 (2011).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기질 및 성격 일치 여부와 성격 성숙도에 따른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감 차이.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나, 김승윤, 이상민 (2016).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8, 337-350.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훈식 (2009).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SNS의 인터랙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아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희 (2005). 또래상담자 활동이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곤, 김경규, 이정렬 (2013). 커뮤니티 요소와 매체 풍요도 요소가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이용자의 이용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8(1), 191-211.

- 이은주 (2015). SNS 사용자 유형 및 이용방식과 갈등유형에 따른 갈등해결 성향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권, 최영 (201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1), 115-148.
-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장상아, 박선영, 이재연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2(12), 1-396.
- 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또래관계와 자아개념 변화, 미래목표인식, 진로성숙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 성장. 교육심리연구, 27(1), 99-123.
- 이현지 (2012). 자기노출정도와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SNS 이용행태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 (2012). 자기노출정도와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SNS 이용행태 분석: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흥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69-189.
- 이희복, 김대환, 최지윤, 신명희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연구. GRI 연구논총, 16(1), 365-391.
- 전범수 (2012). SNS 자기 노출 집단별 동질성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170-178.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라, 장석진 (2017).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8), 1-25.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정유진, 김광웅 (2006). 또래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17-232.
- 정재연 (2012). 예술계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의 만족감 형성. 숙명여자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희, 김동일 (2015).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잘 지도하는 학교의 특성: 개념도 방법 적용. **열린교육연구**, 23(1), 55-73.
- 조주연, 도현심 (2011).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2(2), 15-34.
- 조진행 (2018).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SNS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창현, 여현철 (2011). 소셜 미디어의 수용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4(3), 1295-1321.
- 채비호 (2013). SNS 자기노출정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고은 (2010). 사이버공동체와 정치참여에 대한 기술철학적 접근: 사회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도순 (2012). SNS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 박성현 (2011).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최윤미 (201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우울, 사회성발달,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화 (2012). SNS 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7, 369-408.
- 최훈영 (2006). 통신이력 데이터에 기반한 교우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PC중독 실태조사.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4), 985-1002.
- 함소연 (2016). 청소년의 SNS 이용동기가 학교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경 (2018). 사이버상의 놀이 공간으로서 청소년의 덕후 문화. **디지털융복합 연구**, 16(3), 87-94.
- 홍지은, 강민주. (2013).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과 공격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3), 33-65.
- 황희은, 김향숙 (2015). 자존감,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 지향성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9), 233-253.
- Aboud, F., Mendelson, M., & Purdy, K. (2003). Cross-race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65-173.
- Blumler, J. G. (1979). The role of theory in uses and gratifications studies. *Communication Research*, 6(1), 9-36.
-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Katz, E. (1974). Utilization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Current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s Research*, 19-32.
- Kline, R. B. (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4), 343-36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nhart, A. (2006). *Bloggers: A portrait of the internet's new storyteller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creation: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3), 393-411.
- Park, N., Kee, K. F., & Valenzuela, S. (2009). Being immersed in social

- networking environment: Facebook groups, uses and gratifications, and social outcomes.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6), 729-733.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York: Prentice-Hall.
- Rubin, A. M., & Perse, E. M. (1987). Audience activity and television news gratific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14(1), 58-84.
- Satir, V. (1976). *Making contact*. Celestial Arts.
- Sheldon, P.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unwillingness-to-communicate and students' Facebook use.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0(2), 67-75.
- Swanson, D. L. (1977). The uses and misuses of uses and gratifica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214-221.
- Wenz-Gross, M., Siperstein, G. N., Untch, A. S., & Widaman, K. F.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129-151.
- Wilson, T.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 Abstract

### The effects of the Motives for Using SNS on the Peer Relations of High-School Stu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es for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peer relations for high-schoo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dolescents better and actually verify the effects of the motives for using SNS on the formation of new peer relations and on the strengthening of existing peer relations. To that en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 was established.

Research problem: Do the motives for using SNS influence the peer rel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400 students were selected by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which is a probability sampling method, among high school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for about two weeks from March 11 to 21, 2019. A total of 405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0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f these, 38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three questionnaires that did not respond or answered insincerely.

The questionnaire used for this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on the motives for using SNS, peer relation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using SPSS for Windows 23.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n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were calculated by analyzing the outliers and normality of the

data.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the Cronbach's  $\alpha$  value was calculated, and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Furthermo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otives for using SNS on the peer rel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analyses performed in this study and their results are as follow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otives for using SNS on the peer rel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first,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the motives of using SNS and the variables of peer relation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ursui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pursuit of information, the pursuit of self status, and the pursuit of entertainment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motives for using SN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Second,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motives, including the pursui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pursuit of information, the pursuit of self status, and the pursuit of entertainment, on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such as help, intimacy, and recognition, and on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conflict and competition were examined. When the motives for using SNS that influence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were examined, the pursui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pursuit of information, and the pursuit of self statu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Furthermore, when the motives for using SNS that influence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were examined, the pursui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pursuit of information, and the pursuit of self statu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dolescents are using SNS as a tool to let others know who they are and to facilitate their

peer relations so as to maintain and develop var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urthermore, adolescents are using SNS to keep contact with close friends or for fun, rather than to make friends with other people or to communicate with famous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for adolescents to discover their self and connect with others through S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dolescents who feel lonely and cannot enjoy free relationships in the miserable reality of nuclear family, bullying, individualism, suicide, school violence, and excessiv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tress found a need for a tool to satisfy their needs for relationships and obtain psychological stability and emotional support. It can be seen that while the students do not have satisfying relationships with friends in reality, SNS provides them with a cyber space in which they can form relationships with many friends and concentrate on those relationshi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day when adolescents are using SNS as general communication media, this should be considered a soci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in this modern socie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function of SNS so 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forming and creating the right youth culture through the use of SNS.

**Keywords:** motives for using SNS, peer relations,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Island



## 부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응답 내용은 본인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따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본 설문 결과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느끼시는 바를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절대적 비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연구를 위한 자료 사용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껏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03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 홍 경 희

지도교수 : 김성봉 교수님

e-mail :hkh-0413@hanmail.net

## I. 기초 정보 조사

1. 귀하의 학년은?

- ① 고등학교 1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③ 고등학교 3학년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4.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SNS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모두 고르시오)?

- ① 카카오토티                      ② 페이스북                      ③ 인스타그램  
 ④ 트위터                      ⑤ 블로그                      ⑥ 기타

## II. SNS 이용동기

※ 다음은 여러분의 SNS 이용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4	인간적 소통관계를 맺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7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8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 콘텐츠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이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정리, 보관 하는 차원에서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4	멋있게 보이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SNS 활동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 에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내가 하려는 일에 도움이 되 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8	개인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①	②	③	④	⑤
19	재미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0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21	오락적 목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 Ⅲ. 또래관계

※ 다음은 여러분의 또래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는 나를 귀찮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쁠 때 친구는 나를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는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면 내 친구가 말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는 장난 또는 진짜로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부탁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는 나를 무시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친구는 다른 아이들이 내 욕을 하면 감싸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친구는 내 일이 잘 안될 때 나를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편을 나누어 놀이를 할 때 놀이규칙 때문에 친구와 다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친구에게 비밀 얘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친구보다 뭐든 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친구와 나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는 내 앞에서 나보다 나은 것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내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나에 관한 이야기를 내 친구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친구는 새 학용품을 사면 나에게 자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그것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친구는 내 앞에서 뽐내는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친구는 나의 외모(생김새)에 대해 좋게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놀이를 할 때 내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친구는 내가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 친구는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앞에서 그것을 자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 친구는 나의 좋은 점을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 친구가 가진 물건보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 친구는 나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은근히 샘이 난다.					
32	내 친구는 내 일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준다.					
33	나와 내 친구는 자주 다투는 편이다.					

34	나는 내 친구와 의견(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					
35	나는 내 친구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					

- 끝까지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